

뇌사 인정, 빠를수록 좋다



정경수/MBC 보도국 생활과학부 기자

죽음의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심장사만 인정해오고 있다. 다시말해 심폐기능이 완전히 정지했을 때만 우리들 한국인들은 죽었다고 한다. 그러나 죽음의 또다른 기준으로 뇌사를 인정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다.

이들 국가들은 대부분 소위 선진국들이다. 뇌사를 인정하고 있는 나라들 가운데는 미국을 비롯한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이른바 서구 국가들이 대부분 포함돼 있다.

현대 문명의 앞자리에 앉아있는 이들 국가들이 뇌사를 인정하고 있는데는 과학적인 근거와 논리적 타당성이 있기 때문이다.

인체 모든 기관의 생명활동을 지배, 통제하며 주관하고 있는 곳은 '뇌'다. 따라서 뇌가 죽으면 그 뇌가 지배하고 있는 신체 기관은 기능을 상실하고 만다. 비근한 예로 뇌졸중으로 왼쪽 뇌가 죽으면 왼쪽 뇌가 지배하는 오른쪽 사지가 기능을 잃는다.

‘뇌사’라는 것은 모든 뇌가 죽은 상태이다. 뇌세포는 한번 죽으면 절대로 살려 낼 수 없다는 것이 세계 의학계의 정설이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모두 동원해도 죽은 뇌를 살릴 수 없다는 점은 대부분의 의학자들이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뇌사 상태에서는 짧은 한시적이지만 심장이 뛰고 있다. 심장이 뛰고 있으니 체온도 유지된다.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분명히 살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뇌사 상태는 의료적 수단을 총동원해도 보름을 못넘기고 심장사에 이른다.

뇌사와 심장사 사이의 이 기간이 문제다. 다시는 깨어날 수 없는, 다시말해 신체와 같은 뇌사자에게 막대한 비용이 드는 의료적 수단을 불필요하게 계속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위이며 낭비인가? 더우기 심장사에 이르기 전까지의 뇌사상태에서는 뇌를 제외한 많은 장기들이 아직 살아있다.

심장이 살아 있는 것은 물론 간, 폐, 콩팥, 췌장, 눈 등 주요 인체 장기들 대부분이 건강하게 살아있다. 뇌사가 죽음으로 인정되면 이들 장기들이 적출돼 불치, 난치병을 가장 확실하게 고치는데 귀중하게 쓰일 수 있다.

불치의 간암 환자가 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길은 다른 사람의 건강한 간을 이식받는 것이고, 난치의 만성신부전증을 가장 확실하게 치료하는 방법은 신장이식이다.

뇌사자의 건강한 장기를 이식해 불치, 난치병을 고친 일은 인류 역사적으로 이미 지난 1957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때 이미 ‘남아공’에서 버나드 박사팀에



인체 모든 기관의 생명활동을 지배, 통제하며 주관하고 있는 곳은 ‘뇌’다. 따라서 뇌가 죽으면 그 뇌가 지배하고 있는 신체 기관은 기능을 상실하고 만다.



의해 뇌사자의 심장이식이 이뤄진 이래 현재는 많은 나라에서 거의 모든 뇌사자 장기를 이식해 불치, 난치병을 고치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 뇌사자의 간이식만 연간 천여건에 이르고 있을 정도이다.

뇌사가 인정받지 못해 뇌사자의 장기적출이 살인죄를 구성하는 우리나라이지만, 지난 '88년 3월 서울대병원에서는 살인죄의 위험속에 뇌사자의 간을 이식해 불치의 간질환으로 죽음만을 기다리던 한 소녀를 극적으로 구제한 사건을 신히탄으로 용기있는 의료진들의 감행으로 뇌사자의 장기이식이 잇달아 금년 3월에는 뇌사자의 간으로 간암을 치료하기도 했다.

뇌사자는 절대로 깨어날 수 없다는 점과 뇌사자에 대한 의료는 의미가 전혀 없다는 점, 그리고 뇌사자의 장기는 다수의 불치병 치료에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바란다. 그래서 뇌사가 사망의 기준이 되고 뇌사자의 장기적출이 허용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하루빨리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